

看護員の性格特性과勤務成績과의關係에 관한 研究*

朴 卿 銀**

I. 서 론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시작은 1903년 무렵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천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¹⁾

그러나 과거의 간호발달 과정은 단지, 자기간호, 가족간호, 종교적간호, 직업적간호의 형태에 그쳤는데²⁾ 현대간호의 개념은 병원 중심의 기술적 간호에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사회 건설로 집약되는 인간중심의 전인간호로 간호업무 및 영역도 확대되고 간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³⁾ 즉, 질병 중심의 간호에서 동적이고 포괄적이며, 거시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이른바 전인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인 것이다.⁴⁾

Effic J. Taylor(1934)는 “간호란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생활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예방적 처치를 실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상, 사랑, 동경, 지식, 그리고 요양등이 일체가 되어 표현될 때 비로소 간호의 심오한 본질이 나타난다”라고 했다.⁵⁾

이와같이 간호의 경향이 점차 인간중심으로 변해감에 따라 인간을 간호하는 간호원 자신의 원만한 인간성이 필요해 가고 있으므로⁶⁾ 여기에 부합된 간호원의 성격특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물론, 간호원의 자질로서는 지식, 경험, 지능, 창의성, 봉사정신등 여러요인들이 있으나, M.A. May(1932)⁷⁾는 성격은 개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것, 또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심리학적 용어를 쓴다면, 개인의 사회적인 자극가치라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을 다루는데 있어서 간호원 특유의 인성, 즉 성격적 특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 지금까지의 간호원의 성격특성에 관련된 연구로서는 1927년

Elwood⁹⁾가 간호원과 단과대학 여학생으로 구성된 두 Group에 Laird's Introvert-Extrovert scale과 Woodworth's Emotional Inventory를 사용해, 간호원의 성격특성에 관한 검사로서 쓰였고, Lough¹⁰⁾는 간호원의 분석으로 MMPI에 대한 반응을 이용해, 교양과정과 교육과정에 등록된 여학생과 비교해 간호원 특유의 성격특성을 분별해냈다.

국내에서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로서는 한(1970)의 여교사와 간호원의 성격특성을 비교했다.¹¹⁾ 하(1969)의 연구에 의하면 이상적인 인간간호원이란 이성적 간호원이라고 한바¹²⁾와 같이 환자를 이해하면서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성격특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¹³⁾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원의 성격특성을 중요시 여겨, 바람직한 간호원을 선발하는데 성격특성을 검사하므로써 진정한 간호를 하는 즉, 실무에서 필요로하고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간호원을 효율적으로 선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임상간호원의 근무성적과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다면, 이 성격검사가 장래 간호원으로서의 직무효율성을 예측판정하는 척도적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인 간호원의 근무성적이 좋은 Group과 나쁜 Group의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간호원의 근무성적과 성격검사의 관계를 밝히므로써, 간호원 자질이 있는 바람직한 간호원을 선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H.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144명의 평간호원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1982년 3월 1일부터 1983년 4월 15일까지로 했다.

*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 간호학과

2. 연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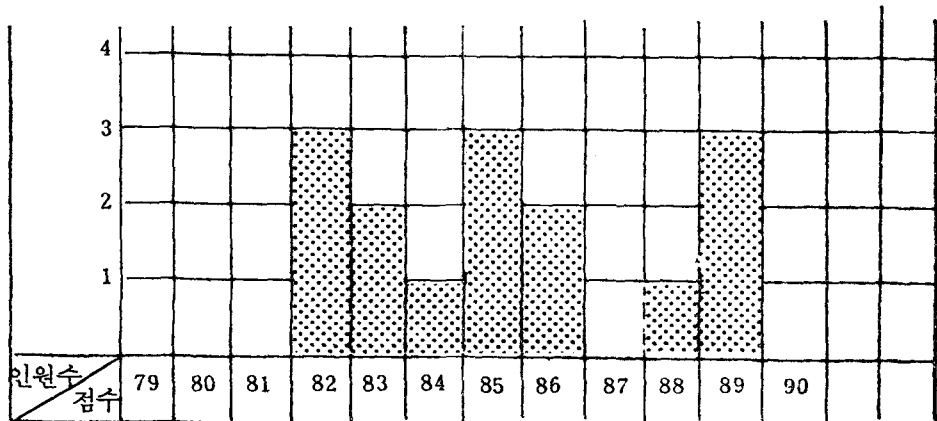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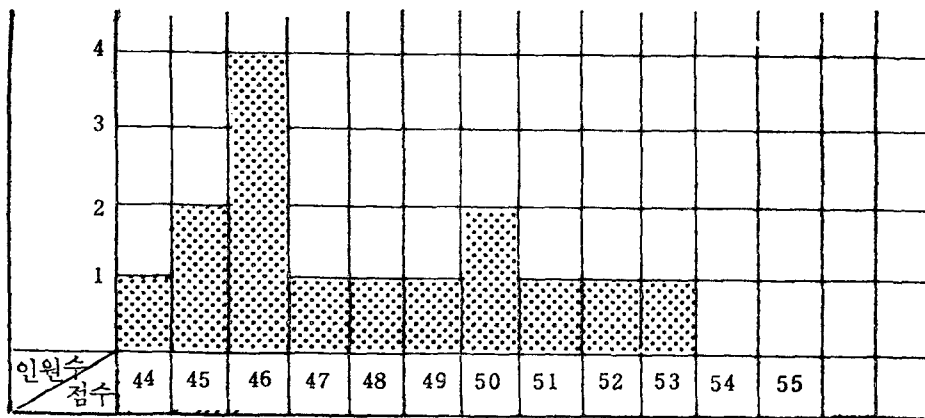
H. 대학병원에서 사용된 근무평가와 MMPI(566문항) 중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⁹⁾을 사용하였다. <부록 1.2 참조>

3. 연구절차

1) 먼저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1982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걸쳐 H. 대학 간호학과 64명과 K대학 교육학과 여학생 총 64명에게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을 실시하였다. Beaver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과 비간호학과 학생에게 실시했던 MMPI의 문항들 중에서 변별할 수 있는 66문항을 뽑아 비교하였는데, 본 연구자도 두 그룹간의 채점을 내어 차이 검증을 하였는데 $p < .001$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Table 1>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 64명

<Table 2> 勤務成績評價에 따른 上, 下位 Group 分布



<Table 1>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ponses of 64 Nursing student and 64 College Women in Education Curricular to Beaver's score.

Group(N)	M(SD)	T
NS (64)	34.39(3.19)	* 3.59
ES (64)	32.23(2.96)	

* $p < .001$

에 대한 Beaver's score mean은 34.19(SD : 3.19)로 나왔으며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Beaver's score mean은 32.23(SD : 2.96)으로 나왔다 두 Group간의 T값은 3.59로 나타났으며,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H.대학병원 간호원 근무성적에 따라 82점 이상인 자를 상위 Group으로 하고, 52점 이하를 하위 Group으로 하여, 각 Group에 속한 15명씩 30명에게 MMPI를 실시해서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를 채점

하여 상위 Group과 하위 Group간의 t 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근무성적에 따른 82점 이상인 상위 Group 15명과 53점이하인 하위 Group 15명의 점수분포는 <Tabl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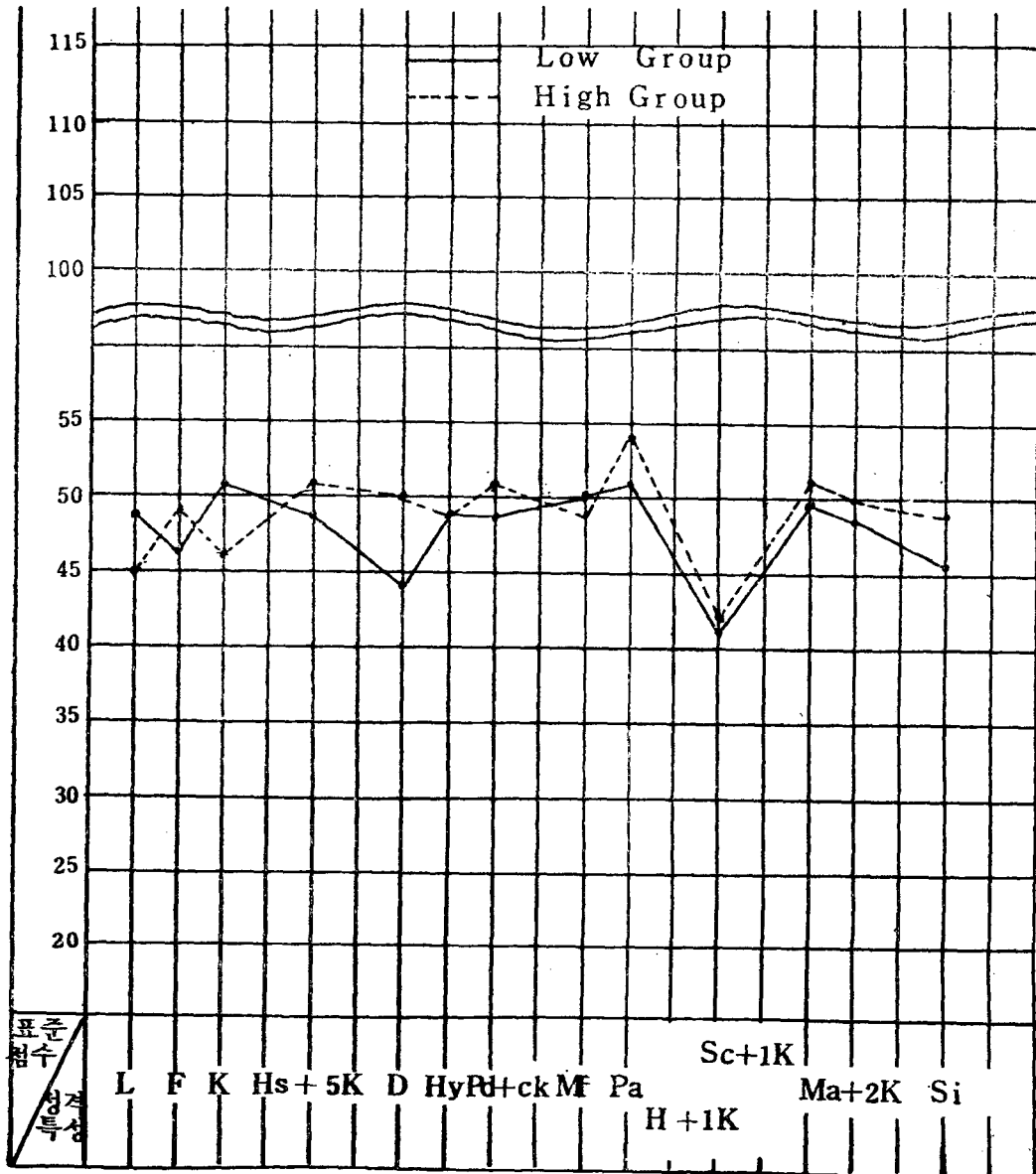
상위 Group에서의 점수분포는 89점 3명, 88점 1명, 86점 2명, 85점 3명, 84점 1명, 83점 2명, 82점 3명으

로 총 15명이며, 하위 Group은 53점 1명, 52점 1명, 51점 1명, 50점 2명, 49점 1명, 48점 1명, 47점 1명, 46점 4명, 45점 2명, 44점 1명으로 나타났다.

2. 다음은 병원내규에 따라 평가된 근무성적 82점이상인 상위 Group 15명과 52점이하인 하위 Group 15명에게, MMPI 566문항을 실시한 결과 각 특성에 대한 mean을 낸 결과 다음과 같은 Group별 MMPI 표준점수가 나왔다. <Table 3 참조>

<Table 3>에서 보는 바와같이 MMPI Profile상 정상

<Table 3> Group 별 MMPI 標準點數



범위가 표준점수 30에서 70까지이므로 두 Group 모두 정상범위에 있다. Low Group과 High Group간에 차이 검증하는 것은 양집단이 평균치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평균치를 검증할 필요없이, 두 Group 모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자는 없었다.

3. 근무성적이 상위 Group인 15명과 하위 Group 15명에게 MMPI를 실시해서 Beaver의 choice of nursing scale에 따른 score를 내어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상위 Group의 Beaver score를 mean은 32.8(SD : 3.42)로 나타났고, 하위 Group의 Beaver score를 mean은 30.3(SD : 3.91)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T값은 2.19로 나왔다. <Table 4>

<Table 4> Group 별 Beaver Score

Group	N	M(S D)	T
High	15	32.8(3.429)	* 2.19
Low	15	30.3(3.91)	

* p < .05)

간호원을 걸러내는 간호교육의 목적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간호원을 걸러내는데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원이란 환자와 모든 간호 대상자에게는 성의를 다하며, 동료간에는 협조를 잘하고 책임있는 직업인으로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정 받으며,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원을 말하는 것이다.¹³⁾ 간호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윤리적인 기풍을 조성한다.¹⁴⁾ 이 원만한 관계 유지란 간호원 자신들이 갖고있는 성격특성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성격특성은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이다. 성격의 기술단위로서 개인을 다 각도로 그 특색을 기술하는 것을 성격 특성이라고 한다.¹⁵⁾¹⁶⁾ **김(1967)**¹⁶⁾은 종래 우리 나라에서는 “성격”은 가치적 견지를 떠나서 오히려 소질적, 선천적인 것으로 써 왔다 한다.¹⁶⁾

N. Munn(1953)은 성격이란 개인의 구성, 행동양태, 흥미, 태도, 능력, 포괄력 및 소질의 특징적 통합이다¹⁷⁾라고 정의했고, **차(1966)**은 직장에서 인간문제를 다룰 때에 천태만상인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을 주로 생리적 욕구와 보수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¹⁸⁾ 오늘날 인사관리의 과제는 단순히 개인에 의한 개인의 지도가 아니라, 집단속에 있는 개인을 집단의 밖에서 보다, 집단속에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인차를 발견하고 개인차에 따라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교육심리학의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제 우리는 개인을 단순

히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집단내의 개인으로서 그 성격을 규명할 뿐더러 그 소속하는 집단에 따라서 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⁹⁾²⁰⁾ 간호부분은 오늘날 포괄적의료(comprehensive medical care) 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독립적 위치를 확보하므로, 환자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간호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¹⁾²²⁾

IV. 결론 및 제언

본 조사연구는 간호원의 성격특성이 근무성과 관련이 있어, 이 성격검사가 장래 간호원으로서의 직무효율성을 예측판정하는 척도적 기준이 될수 있다고 보아, 간호원의 근무성과 성격검사의 관계를 밝히므로서, 간호원 자질이 있는 바람직한 간호원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구로서는 “Bearer's choice of nursing”이라는 간호학과 학생과 비간호학과 학생의 성격특성을 판별해낸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H.대 병원에 근무하는 144명의 평간호원들 중에서 근무성적이 상위 Group인 15명과 하위 Group인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개인에 따른 MMPI 566 문항을 실시하여 198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근무성적이 상위 Group인 15명과 하위 Group 15명에게 566문항의 MMPI를 실시해서 Beaver의 “choice of nursing scale”에 따른 score를 내어, 두 Group간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상위 Group의 Beaver score의 mean은 32.8(SD : 3.429) 하위 Group의 Beaver score의 mean은 30.3(SD : 3.91)으로 나타났다. 두 Group에 대한 T값은 2.19로 나왔고,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간호원의 성격특성이 근무성과 관련이 있고 근무성적이 좋은 Group이 나쁜 Group보다 MMPI에서 추출해낸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중 Beaver score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제언으로서 바람직한 간호원을 선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인의 요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MMPI를 사용한 Beaver's choice of nursing scale을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중단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박병숙 ; 한국간호교육의 당면문제, 이화여자대학 간호대학 논문집, 1 : 36, 1976.

- 2) 이영복; 간호사, 수문사, 1981.
- 3) 한윤복; 간호원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카톨릭 대학의학부 논문집, 19: 368~369, 1970.
- 4) 전산초; 전인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행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4(1): 1~21, 1974.
- 5) Effie J. Taylor; What is the nature of nursing, AJN, 347: 476, 1943.
- 6) 박정호; 종합병원 간호인력 수요에 관한 소고, 대한병원협회지, 4(10): 12~15, 1975.
- 7) M.A. May;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Y, ALF Pres, 63, 1932.
- 8) 강규숙, 정현숙; 간호대학 학생의 학업 성적 예측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논문지, 1: 27~39, 1976.
- 9) Beaver A.P.; Personality factors in choice of nursing, J Appl Psyc, 37: 374~379, 1953.
- 10) Beaver A.P.; Psychometric data and survival in a college of nursing, Psyc Reports 2: 223~226, 1956.
- 11) 강경자;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2(1), 1971.
- 12)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9: 28~29, 1969.
- 13) 이귀향, 이영복; 간호사회학, 수문사, 9~10, 1982.
- 14) 한국간호원의 윤리 강령, 대한간호협회제정공포
- 15) 최정훈; 대학생 학업성적에 관한 일반적성 검사의 예언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 9: 162~163, 1963.
- 16) 최정훈; 일학습적 타당도에 관한 추측 연구,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 11, 1965.
- 17) 카톨릭의대간호학과; 병원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대한간호, 7(2): 13~24, 1967.
- 18) 박영호, 인삼관계론, 서울, 설명문화가, 131~132, 1966.
- 19) Elwood, R.H.;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 in selecting a carrer the nurse and the college gril, J. Apl Psyc, 4, 19~20, 1954.
- 20) Slater and Roth; Clinical Psychiatry, Third Edition, Tindall and Classell London, 490~491, 1969.
- 21) Kim Yeong Seop; A future perspective for demands and supplies of Korean health care persons in the year 2000, THE HANYAUNG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 39~85, 1981.
- 22)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307~309, 1981.
- 23) 방용자; 간호원의 근무성적 예측에 관한연구, 카톨릭의대논문, 4(3): 57~62, 1974.
- 24) 심경석; 성격특성과 학력간의 상관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 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 1970.
- 25) John R. Thurster & Helen L. Brunclik;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achievement in nursing educations, nursing research summer, 14(3): 203~209, 1965.
- 26) 왕매련; 간호업무경정, 대한간호, 13(4): 23~24, 1974.
- 27) M.M. Reec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 success in a nursing program, nursing research, 10: 172~176, 1961.
- 28) 정현숙; 간호원의 근무성적 예측변인의 효율성에 관한연구, 간호학회지, 7(1): 112~120, 1977.
- 29) Maslow, Abraham; Motivation & Personality, N.Y. Hoper & Row, 484~485, 1954.

—Abstract—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and the work achievement of nurses.

Kyung Eun Park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siarable selection of nursing.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made up of 144 R.N. in active service at H.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This study was "Choice of nursing scale" as a tool which was MMPI questionnaire developed by Beaver (1953), and was consist of the eboice of nursing scale made up to 66 items.

The finding of this study related to their personality and their work achievement showed ver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asteis Thesis at Hanyang University

1. There was a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ponses of 64 student nurses and 64 College Women in Educations Curricular to Beaver score. ($p < .001$)
2. There was a significance in Beaver's score between high group(above 82) and low group(below 53) according to head nurses' work achievement score ($p < .05$)
3. This study had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and the work achievement of nurses.
For the reason,
I suggest that we had to apply to select the appropriate nurses in Health Field as Hospitals.